

2018년 4월 6일

csf@kiep.go.kr

## 중국, 금융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 중국 정부는 금융 감독기구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銀監會)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保監會)를 통합하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를 신설하고 인민은행의 감독 권한을 강화(3월 21일).
- 은감회와 보감회를 통합하고 각 감독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법규 입안 권한은 인민은행으로 이관하여, 인민은행과 은보감회간 정책 이행이나 감독 조율이 가능
- 한편, 기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어 중국의 금융 감독기관은 1위(委)1행(行)2회(會)체제로 변경

표 1. 조직개편 후 기관별 주요업무

기관	금융안전발전위원회(金融发展稳定委员会)		
	인민은행 (人民銀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	증권감독관리위원회 (證券監督管理委員會)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정책 제정 및 집행</li> <li>-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li> <li>- 은행·보험업 법률법규 초안의 작성관리 및 기본제도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보험업의 통일관리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선물시장 감독</li> <li>- 증권 발행, 매매, 예탁, 결제 및 상장법인 공시 등 감독</li> <li>- 증권 및 선물 관련 법규 위반 조사 및 처벌</li> </ul>

- 중국 정부는 3월 양회에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고, 특히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감회와 보감회 통합안을 제출<sup>1</sup>
-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 주요 당면과제로 중대 리스크예방(특히 금융리스크)이 제시되면서 금융 감독 기구의 통합 필요성이 재차 대두

1 기존 1행 3체제에서 통합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관업무가 겹치는 조직을 통합하여 정부기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통치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2017년 11월 ‘금융안전발전위원회(金融稳定发展委员会)’를 설립하고, 리스크를 총괄 감독했으나 위원회의 감독만으로는 한계에 직면<sup>2</sup>
- 중국의 부채규모는 최근 5년간 가파른 상승세(GDP대비 약 260%)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회사채 부도 규모가 2년 연속 최대 규모로 증가(393억 위안, 2017년)<sup>3</sup>

#### □ 아울러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동시에 새롭게 신설된 은보감위 주석과 인민은행 총장 인선도 추진

- 새롭게 은보감회 주석으로 인선된 귀수칭(郭树清)과 인민은행의 총재로 임명된 이강(易纲)은 모두 경제 부총리 류허(刘鹤)<sup>4</sup>의 최측근으로 부채해소, 금융효율성 개선, 올바른 시장역할 강조 등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예정
- 신설된 은보감회 주석을 맡은 귀수칭이 인민은행 부총재와 인민은행 공산당서기직도 겸직하면서 인민은행 총재 이강(인민은행 당부서기)보다 당서열이 높아져 정부조직과 당조직의 위계질서가 역전된 상황이 발생<sup>5</sup>

#### □ 이번 금융 감독기관의 개편과 인선은 향후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은보감회는 통일된 법규에 의거해 업종별 감독의 허점을 이용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은행은 핵심정책 제정 및 거시건전성 감독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
- 은보감회는 안방(安邦)보험의 지불 능력과 경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자금 608억 위안을 투입(4월 4일)
- 인민은행은 안정적이며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양측으로 실물경제를 지원, 특히 △유동성의 탄력적(松紧适度)운용 △M2증가율과 신용대출, 사회용자규모의 합리적 증가유지<sup>6</sup> △금융자원의 실물경제 지원촉진 △영세기업, 농업, 빈곤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예상
- 한편, 공산당내 기반이 확고한 귀수칭 주석을 인민은행 당서기로 임명한 것은 인민은행의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산당의 통제력 강화라고 평가
- 귀수칭 주석이 당서기로 공산당의 정책 방향을 전달받아 인민은행의 정책을 설정하고, 이강총재는 정책운행을 담당

#### 참고자료

凤凰财经, 中国金融四十人论, 经济观察报, Bloomberg 등

(작성자 : KIEP 중국팀 박민숙 전문연구원)

2 중국 정부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안방(安邦)보험의 경영권을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

3 2017년 기준 회사채 금리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도 상승세가 지속. 또한 2017년 4분기 은행의 무수익여신규모는 17,057억 위안으로 3분기 16,704억 위안보다 2.1% 증가

4 시진핑 경제책사인 류허는 국무원 경제총괄 부총리,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5 중국은 공산당 국가체제로 중국의 주요기관이나 기업에 공산당 산하 조직인 공산당 위원회가 존재. 공산당 위원회의 서열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기관장이나 기업의 대표보다 높음.

즉,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관 인민은행에 공산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그동안 인민은행 총재가 공산당위원회 서기를 겸직

6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M2증가율과 사회용자규모의 목표를 미제시, 이는 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마련(经济观察报)